

교회 목표

1. 천국일꾼을 키우자
 2. 우리 세대에 민족 복음화를 이룩하자
 3.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자
-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18:1)

주간 중헌

발행인: 신성종
편집인: 윤명식
편집국장: 손경수
발행처: 대한예수교장로회
충헌 교회
서울 강남구 역삼동 665-1
전화: 552-8200 FAX: 552-2925
사서함: 영동우체국 1896호

1992년도 목회 지침 표어: 민족을 위한 제사장 교회가 되자 주제성구: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눅14:23)

주일 성수, 퇴색되어간다

매식·물품 구입 행위 계속 늘어
교회 차원의 차단 방법 강구돼야

우리 교회 교인들의 “주일 성수” 의식이 퇴색되고 있다.

주일은 하나님께서 대속받은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주님의 날인데, 이 날이 경건치 못하고 세상 사람들(불신자)과 똑같은 행동을 함으로써,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주님의 명령을 위반하고 있다.

최근 당회장 신성종 목사는 수요일예배시간에 설교를 통해 주일 성수의 당위성을 재차 강조하면서 “충헌교회의 전통의 맥은 주일 성수”였음을 역설했다.

그런데 일부 교회학교, 찬양대원, 남녀전도회 회원들이 주일에 매식 행위를 하는가 하면, 물품(다과 포함)을 구입하는 일을

예사로 하고 있다.

교회 동문 경비실은 각 부서에서 신청하여 매입한 물품들이 준비하게 주인을 기다리며 달려 있고, 교회당 주변의 빵집, 햄버거집 등에서는 물건을 없어서 팔지 못할 정도로 충헌교회 교인들의 출입이 잦다는 사실이 확인된 이상, 더 이상 방치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교회는 망신을 당하는 후유증이 있을까 심히 두렵다.

이번 기회에 교육, 찬양, 전도위원회 위원들은 공문을 통해서 각 부서로 주일 성수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주일에 어떤 형태로든지 물건들이 사입되지 않도록 피차 협력해야 하겠다. 또 관리국

은 물품이 교회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통제해주시기를 부탁한다.

피로 값주고 사신 몸된 충헌교회가 보수 신앙과 주일 성수의 좋은 전통으로 39년간 부흥, 성장해왔는데, 일부 무분별한 교인들 때문에 교회의 이미지가 흐려지지 않도록 모두가 노력하고, 각 부서의 지도를 맡은 교역자들이 설교와 성경 공부 시간을 이용하여 주일 성수에 대해 특별히 교육할 필요가 있다.

김창인 원로목사
총신신학원
개강수련회 인도

김창인 원로목사가 오는 3월 17일부터 19일까지 총신대 양지 캠퍼스에서 개최되는 총신신학원 개강수련회의 주강사로 청빙받았다.

김 원로목사는 이 수련회에서 목회 지망생들에게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이라는 주제에 따라 강의하게 된다.

카메라 쏠점



▲전국 목회자세미나가 지난 3월 9일부터 시작되었다.



▲3월 11일 저녁 8시 20분 충헌전도대 개강예배가 있었다.

3월 17일, 민족 복음화와
북한 선교를 위한 특별 기도회

전도위원회(위원장 최상규 장로)는 오는 3월 17일(화) 오전 9시부터 서부전선 통일촌교회에서 민족 복음화와 북한 선교를 위한 특별 기도회를 갖는다.

이날 최상규 장로의 사회와 이태규 장로의 기도 신성종 목사의 설교 및 축도로 예배를 드린 후, 김해규 목사의 인도로 통성 기도를 하는 시간을 갖는다.

충헌프리즘

◎...요즈음 서울역을 비롯한 신도림역, 종로 3가역, 청량리역 앞 광장에서는 XX선교회 어깨띠를 한 남녀들이 “금년 10월에 예수님의 공중재림이 있을 것이니. 모든 것 다 버리고 휴게 준비하라”는 핸드파이크의 카랑카랑한 목소리가 요란하다.

특히 이들은 날짜와 시간까지 10월 28일 24시로 명시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종말의 시기에 대하여 대답하지기를, “그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이 아시느

나라”고 말씀하셨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 분명히 예수님 재림을 알고 있고 믿고 있다. 그래서 늘 깨어 일어나 기도하고,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등불을 준비하고 예수님 맞이할 태세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인간은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들의 허무맹랑한 외침에 현혹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이를 제어할 능력이 한계에 달할 때도 있다.

특히 하나님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을 혼동해서도 안되며, 질서의 하나님을 혼란의 하나님으로 착각해서도 안된다.

맹종의 신앙에서

기복의 신앙으로, 기복의 신앙에서 종말의 신앙으로 변천해온 한국 교회 교인들의 신앙 의식에 어떤 의미에서 주님 재림날이 불원하다는 느낌이 점점 막아오는 것만은 사실이다. 모두가 깨어 기도하자.

◎...협일이 높고 가슴이 두근거리는 사람을 위해 쇼팽의 왈츠곡이 라든지, 베토벤의 교향곡 제6번 “전원”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피아노 소나타 “월광”을 들려주면 잠치나마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다는 얘기가 있다. 또 피로한 마음을 상쾌하게 하기 위해 색은 차이코프스키의 바이올린 협주곡, 리스트의 헝가리 광시

곡 3번, 5번, 그리고 모짜르트의 피아노협주곡 제26번 “대관식”이 적격이라고 한다. 인간은 생각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때때로 쌓이는 피로와 권태감에서 탈출하고 싶은 스트레스 해소를 위하여, 어떤 방법의 콘트롤을 자기 자신이 연출할 수 있는가를 계속 추구하고 있다.

그러나 심령 깊은 곳에 내재한 참 영혼의 기쁨과 환희를 맛 보기 위해서 찬송 466장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맘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라는 고백이 필요하지 않을까. 세상이 하도 질식할 것 같은 어지러운 때문에...

원로장로 4명

수도노회서 공로 축하받아

수도노회(노회장 이만수 목사)는 지난 14일(토) 오후 4시 왕십리교회당에서, 동 노회 산하 장로들 가운데 장로 장립 30주년 이상 된 장로들에게 그 공로를 치하하는 축하 예배를 드렸다.

수도노회 산하 교회에서 19

명이 축하를 받았는데, 우리 교회는 4명의 장로(원로)들이 포함되어 있다.

▲김천준 장로, ▲우성원 장로, ▲한명욱 장로, ▲윤종순 장로

강남 지역 복음화 위한 기도회 개최
18일 오전 7시 30분
인터콘티넨탈 호텔 대회의실

강남 지역 복음화와 나라를 위한 조찬기도회가 오는 3월 18일(수) 오전 7시 30분 삼성동 소재 인터콘티넨탈 호텔 그랜드 볼룸에서 개최된다.

본 교회 김영삼 장로 초청으로 마련된 이 조찬기도회는 강남 지역 27개 교회의 목사, 장로, 안수집사, 남녀전도회, 청년회장 등 약 1천2백여명이 참석할 예정

이다. 이날 사회는 본 교회 당회장 신성종 목사가 진행하며, 설교는 갈보리장로교회 박조준 목사, 축도는 믿음의 교회 전가와 목사 등이 담당한다.

강남 지역에 거주하는 충헌교회 교인들의 많은 참석도 주축은 바라고 있다.



충현강단

신성종 목사

성부께 합당한 생활 1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엡5:1~14)

하나님을 바르게 믿으면서 살아가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에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믿는 바를 바로 행하고 성경 말씀대로 바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부터 6장까지에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사는 생활이 어떤 것인가에 대하여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5장 1절부터 21절까지는 성부 하나님께 합당한 생활에 관하여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14절까지를 먼저 살펴보면, 여기에서는 성부 하나님께 합당한 생활 원리로서 크게 두 가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 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은 사랑 가운데서 행하여야 하고, 또한 빛의 자녀들과 같이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본문을 자세히 연구해보면서, 사랑 가운데서 행하고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가는 삶이 어떠한 것인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1. 사랑 안에 거하는 삶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엡5:1)

아이들은 부모 흉내내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5살 정도의 여자 아이들은 어머니의 화장대 서랍을 열어 립스틱을 발라보기도 하고 분을 발라보면서 어머니의 흉내를 냅니다. 딸이 볼 때는 어머니가 최고이기 때문에, 어머니처럼 되고 싶어서 그런 것입니다. 또 남자 아이들은 아버지를 본받기 원합니다. 이들은 힘도 세고 돈도 많고 걸음걸이도 빠른 아버지 흉내를 냅니다. 또한 자기들의 예쁘고 귀여운 신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어머

하나님을 모델 삼아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사랑 가운데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엡5:2)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버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박히실 때 그것은 단순히 예수님을 혼자서 십자가에 못박히게 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박히신 것입니다. 그것처럼 우리들도 우리 자신을 버려야 합니다.

부모들은 자식들을 위하는 것이라면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립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우리들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못박히셨습니다. 우리들은 그것을 본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을 돌보아주고 병자를 위해 기도해주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바니라”(엡5:3)

우리들은 흔히 농담을 할 때가 있습니다. 농담을 하다가 세상 이야기도 많이 합니다. 그러다보면 음행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기도 하고 더러운 이야기, 탐욕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더욱 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마땅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에 관한 이야기를 절대로 해서는 안됩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감사를 표현하지 않으면 감사하는 마음마저도 없어져 버립니다. 감사하다는 말을 많이 하십시오. 그렇게 되면 감사의 조건이 자꾸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너희도 이것을 정녕히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엡5:6)

우상 숭배자는 영적 음행자입니다. 육적인 음행과 영적인 음행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합니다.

2. 빛의 자녀로 사는 삶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엡5:8)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들은

사람은 결과적으로 참된 기쁨을 얻게 되고 영광이 찾아옵니다.

본문에는 우리들이 참여할 것과 참여하지 않아야 할 것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항상 빛의 일에 참여해야 합니다. 불신자들을 너무 가까이 하지 않아야 합니다. 물론 전혀 가까이 하지 않으면 전도할 기회가 없습니다. 따라서 기도하는 가운데 불신자들과 교제를 나누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을 모방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시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중보의 기도를 하시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중보의 기도를 하고 계시는지 아십니까. 따라서 우리들은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항상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빛의 열매인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따라 살아가야

빛의 자녀로서 합당한 생활을 해야 합니다.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니 그러므로 저희와 함께 참여하는 자 되지 말라”(엡5:6, 7)

혼자서 죄 짓기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 사람이 함께 죄를 짓는 것은 쉽습니다. 나쁜 사람들 사이에 있다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휩쓸리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늘 하나님께 동참해야 합니다.

9절에는 빛의 열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엡5:9)

빛의 자녀인 우리들은 기회가 닿는 대로 착함의 열매, 의로움의 열매, 진실함의 열매를 많이 맺어야 합니다.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엡5:10)

우리들은 아버지 하나님을 항상 기쁘시게 해드려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 마음에 기쁨이 오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 자신을 기쁘게 하려고 할 때는 결국 얻는 것은 고통입니다.

왜 우리는 죄를 범합니까? 쾌락을 따라 살다보니 죄를 범하고 세상 것에 잘못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참된 기쁨을 얻는 비결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으로 살기보다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드리려고 애쓰는

하나님께서 성전이 가득 채워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교회를 허락하여주셨으니 우리들은 이 성전을 가득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네게 비취시리라 하셨느니라”(엡5:14)

우리들은 지금 있는 자리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들은 어두움 가운데 있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곳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어두움 가운데 사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하여 그들과 만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과 함께 세상 철학을 공유하고, 생활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들은 빛의 자녀들처럼 사랑 가운데서 행하고, 빛의 자녀들처럼 행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랑 안에 거하는 삶

나의 높은 신발을 신거나, 남자 아이들은 아버지의 큰 신발을 신고서는 기분이 좋아서 이리저리 돌아다니기도 합니다.

본문 1절에 나오는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말에서 ‘본받는다’는 것은 ‘흉내낸다’는 말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자기 부모들을 흉내내는 것과 마찬가지로 성도들은 하나님을 흉내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엡5:2)

어떤 의미에서 우리들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모델이고 우리들은 조각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사랑의 실천 방법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엡5:4)

다른 사람들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는 소위 유머 감각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자칫하면 우리들의 생활을 더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삼가해야 합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말을 해야 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감사하다는 말을 잘 하지 않습니다.

한번은 제가 친구에게 신세를 진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에게 고맙다는 말을 했더니 친구 사이에 무슨 그런 얘기를 하느냐고 했습니다. 그러나 친구 사이일수록 더욱 감사하는 마음을 표시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부모 자식 사이나 부부 사이에도 감사하다는 말을 하는 데 인색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대해서는 두 말 할 나위도 없습니다.

신성종 목사 저서 안내

신약총론	CLC
신약신학	CLC
요한계시록 강해	도서출판 엠마오
로마서 강해	도서출판 엠마오
사도행전 강해	도서출판 엠마오
기독교의 ABC	도서출판 엠마오
초급 헬라어	충신출판사
신약역사	신행협회
엠마오 성경연구	도서출판 엠마오

I. 들어가는 말

자녀들의 신앙 인격 체계는 부모들의 신앙과 인격, 그리고 가정 구조 혹은 그 분위기로부터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 교육신학자들의 거의 공통된 견해이다. 하비(O.J. Harvey)와 펠크놀(C. Felkner)은 부모와 가정의 관계 구조 속에서 형성되는 자녀들이 신앙 인격 체계를 의존형, 부정형, 자기 중심형, 그리고 이상형으로 분류한다.

의존형은 정직과 가문, 그리고 순종을 강요하는 엄격한 부모 슬하와 경직된 가정 분위기 속에서 자란 자녀들이 주로 가지는 유형으로, 매우 보수적이며 새로운 정보와 환경에 적응하기 어려운 성품을 가진다.

부정형은 언행 불일치와 신앙 결핍, 그리고 방임의 태도로 자녀들을 대하는 아버지와의 깊은 애정과 애정을 가하는 어머니 슬하에서 자란 자녀들이 가지는 유형으로, 전통과 권위에 대해서 매우 반항적인 특징을 나타낸다.

자기 중심형은 교묘하게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을 의존하도록 만드는 이기적 유형으로, 엄부자모나 편모 슬하에서 불균형된 사랑을 받고 자란 자녀들이 가지는 일종의 신앙 인격 체계이다.

이상형은 온화하며 모순되지 않고 청렴결백하게 긍정적인 사고를 갖고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자녀들을 대하는 부모 슬하와 가정 분위기에서 자란 자녀들이 주로 가지는 유형으로, 새로운 정보와 환경에 잘 적응하는 능력, 독립심, 합리적 사고와 행동을 장점으로 갖는다.

이제 필자는 자녀들의 신앙 인격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가정(부모 포함)의 체계가 무엇인지를

충현논단

가정과 자녀 신앙 교육의 원리

김태준 목사
(제2교구, 중등3부 지도)



규명하고, 가정에서의 자녀 신앙 교육을 위한 두 가지 원리를 제시하고자 한다.

II. 가정의 정체 규명

사회학에서는 가정을 결혼, 자녀 출산, 육아 그리고 사회화를 위해서 존속한다는 기능적 유비법으로 설명한다. 사회학자 킹슬리 데이비스(Kingsley Davis)는 가정을 재생산 기능, 유지 기능, 안식의 기능, 사회 진출을 위한 위치 선정의 기능, 그리고 사회화 기능(유아 양육, 행동 규범의 교육, 사회 통제 기능의 습득)을 가진 조직체로 보았다. 그러나 버나드 파버(Bernard Farber)의 지적과같이 가정은 생명력, 집단 인격, 생명과 생명의 위험의 존재 구조이기 때문에 가정의 정체를 기능적 측면에서만 찾을 수는 없다. 여기에 사회학의 한계가 드러난다.

가정의 정체 규명에 대한 신학적 노력은 에밀 브룬너(Emil Brunner), 호레스 부쉬넬(Horace Bushnell), 랜돌프 밀러(Randolph Miller), 그리고 키란 스카트(Kieran Scott) 등의 학자들에 의해서 시도되었다. 브룬너는 가정의 정체를 "하나님의 창조 질서"로 보았다. 이는 하나님의 창조 영역으로서의 가정이 결혼, 자녀 생산, 그리고 사회화보다 먼저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그 속에 담고 있다는 뜻이다. 브룬너에 의하면 가정은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그는 가정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끊임없이 진행하여가는 경륜과 질서의 영역으로 이해했다.

부쉬넬은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네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에 이르리라"(창17:7)는 말씀과 유아세가가 가지는 신앙적 의미를 근거로 가정을 언약 공동체와 은총의 매개체로 규정하였다. 그에 의하면, "하나님은 가정의 공동체를 세우시고 대대로 신앙 가정의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으며,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밀러는 부쉬넬의 언약 공동체와 은총의 매개체로서의 가정 사상을 구속적 세포라는 용어로 집약하여 가정을 설명하면서, 구속적 세포인 가정을 통해서 가족 구성원들과 자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구원의 역사가 확산되어가며, 사랑과 용서, 그리고 화해의 경험을 나누게 된다고 말했다.

스카트는 부쉬넬의 이론을 기독교 교육으로 확대하여 가정을 기독교 교육의 기본 단위로 해석했다. 다시 말해서, 그는 가정을 자녀들을 위한 신앙과 인격 교육의 장으로 보았다. 그래서 스카트는 가정에서 부모는 자녀들에게 신앙과 인품 교육을 시켜야 하며 그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힘써야 한다고 했다.

III. 자녀 신앙 교육의 원리

가정의 정체에 대한 신학적 규명 작업은 브룬너의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정의에서, 부쉬넬의 언약 공동체 및 은총의 매개체라는 설명을 거쳐, 밀러의 구속적 세포 이론과 스카트의 신앙과 인격 교육의 장이라는 해석에까지 이르렀다. 이제 기독교 교육의 장인 가정에서의 신앙 인격 교육의 두 가지 기본적인 원리를 살펴보기로 하겠다.

1. 가정의 분위기 창조에서 바람직한 자녀 신앙 교육이 가능해진다는 원리이다.

여기서 분위기관 환경이라는 외적 요인을 포함하는 것은 사실이나, 환경이 반드시 교육적 분위기를 만드는 것은 아니다. 분위기관 환경 이상의 것으로 부모 자녀간의 관계 차원에서 생겨나며 사랑이라는 단어로 표현될 수 있다. 사랑의 분위기관 가정에서 그 어떤 통로보다 삶과 삶, 부모와 자녀 사이의 호흡을 더욱 열어서 놓는 통로가 된다. 이것은 부모의 일방적인 전수나 강요나 방임이 아니라, 오히려 공동적인 참여의 통로이며 동시에 공동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매체가 된다. 그러므로 사랑의 분위기관 창조는 삶과 신앙, 신앙과 헌신을 교류하는 가장 힘있는 방법이며 전달 매체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러한 분위기는 신앙과 삶과 유산을 내면화·사회화하는 길이 되는 것이다. 제니 슈미트(Jeanne Schmid)는 가정을 준비된 환경으로 보고, 그곳을 통하여

비로소 자녀들이 신앙과 사랑과 은총의 경험을 하게 된다고 했다.

2. 대화에 의한 의사 소통을 통해서 바람직한 자녀 신앙 교육이 이루어진다는 원리이다.

부모를 교육자로 규정하는 교육학적 정의는 그 의미가 매우 큰 것이다. 그러나 부모의 지식, 신앙, 그리고 관습을 주입식으로 자녀들에게 교육하려고 한다면, 비효과적인 교육으로 전락될 위험이 있다. 그래서 가정 기독교 교육의 새로운 정의는 부모를 대화자(Andragogy)로 규정짓는 것이다. 대화자로서의 부모는 가정의 목회자라는 의미도 포함한다. 대화자로서의 부모는 마땅히 가르칠 성경 교육, 가정 예배, 그리고 기도 및 생활 훈련을 시키기도 하면서 동시에 자녀의 성장 과정을 사랑으로 지켜보며 대화와 돌봄의 행위를 통해서 양육하며, 자신의 발전을 끊임없이 추구해가는 이상적 부모형을 뜻한다.

IV. 맺는 말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정, 역사가운데서 당신의 뜻을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인식하고 우리의 가정을 지켜가야 한다. 동시에 우리의 가정은 언약 공동체요, 은총의 매개체이며, 구속적 세포 조직인 동시에 신앙과 인격 교육의 장이므로, 그리스도인 부모들은 사랑과 창조의 분위기를 가정에서 조성하면서 대화자로서의 역할을 통해 자녀 신앙 인격 교육의 사명을 하나님 앞에서 성실히 감당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자녀들은 이상적인 신앙 인격을 갖춘 성숙되고, 책임질 줄 아는, 그리고 결실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것이다.

장로칼럼

그리스도인의 사회 참여



이종석 장로
(제1교구장)

만물이 겨울의 긴 잠에서 깨어나 소생하는 봄이 돌아왔다.

금년에는 3월 24일 국회의원 선거를 비롯해서 굴곡진 선거가 있어 정치란 단어를 음미케 한다.

20세기의 막을 내리고 21세기의 문을 여는 분기점인 금세기의 말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다. 역사적으로 시대의 큰 획을 긋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혹자는 요즈음 우리가 처한 환경이 19세기의 말과 흡사하다고 한다.

지금부터 꼭 46년 전 1946년 서울 덕수궁에서 미·소 공동위원회가 개최될 무렵이다. 서울을 비롯하여 경향 각지에서 "소련에 속지 말고, 미국 사람 믿지 말고, 일본 사람 다시 온다."라는 말이 널리 유행하고 있었던 때가 있었다. 이로부터 오랜 시간이 지난 오늘에 있어서도 그 당시에 유행하던 이런 경구는 우리의 주목을 끌고 있다. 무엇보다도 시대사적 의미에서 오늘의

정치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해주는 말인 것이다.

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듯이 우리 그리스도인 역시 정치 현실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정치를 초연해서 살아야 한다. 정치에 초연해야 한다는 말은 정치에 말려들지 말자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주체 의식을 분명히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말이다. 화이부동의 정신이다. 정치를 초월하면 사물을 바르게 볼 수 있고, 처신을 바르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치란 무엇인가. 바르게 다스리는 것이다. 오늘의 현실을 보라! 바르게 다스려지고 있는가. 정치란, 물이 자연스럽게 위에서 아래로 흐르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구부러진 것을 반듯하게 펴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치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근거해야 한다. 정치는 도에 근거해야 한다. 따라서 정치란 도와 의로움에 근거해야 한다. 도란 무엇인가. 사람이 마땅히 걸어야 할 길인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군자대로행이란 말이 있지 않은가.

요즈음 우리의 사회는 무엇이 문제인가. 수출은 부진하고 임금과 물가가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가 어렵고 문제인 것처럼 떠들어대지만 보다 더 큰 문제는 이 사회에 참다운 의인이 없다는 것이다. 도인이 없는 것이 문제이다. 이 사회에 어른다운 어른이 없어져버린 것이 문제이다. 그래서 이 사회가 버려져버린 사회로 되어버린 것이다.

이 나라가 진정 잘 살 수 있고 축복 받는 길은 국민이 바른 정신을 가지고 의롭게 사는 일이다. 누구보다도 그리스도인이 바르게 사는 일이다. 이 사회가 의로운 사람을 길러내는 일이다. 바로 정의 위에 정치가 있고, 교육이 있고, 경제가 서야 한다.

그러면 이와 같은 벽란 일을 누가 해야 할 것인가. 당연히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것이다. 그리스도인은 의의 생명을 소생케 하는 그루터기가 되어야 하고, 꺼져가는 이 사회의 회로불에 불씨가 되어야 한다.

이사야 선지자가 범죄한 유다를 보고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라도..."(사 1:4)라고 애대했던 것처럼 이 사회의 부패가 심화되어 버리지 않았는가. 범죄한 나라란 말은 범죄한 지도자란 말이고, 허물진 백성이란 말은 어리석고 무지한 백성이란 뜻이다. 지도자는 악독하고 백성은 어리석었으니 다 함께 망했다는 말이다. 그래서 슬프다는 말이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오늘의 비참한 사회상을 보고 분연히 일어서서 이 빼돌어진 사회를 바로 잡는 데 일익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다가오는 선거에 있어서도 구국하는 일념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양심에 부끄러움 없이 이 나라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깨끗하고, 정치가로서 지조가 있는 참 일꾼을 뽑아야 할 줄로 안다.

다음호 칼럼은 김영삼 장로님께 부탁드립니다.

사랑의 집 건축 현장을 찾아서

“순간순간 주님의 손길을 느낍니다”

지난 90년 6월 기공 예배를 드린 이래, 사랑의 집 건축은 하나님의 예정하심대로 모든 것이 진행되고 있다.



◀이미 바닥 공사가 끝나고, 현재 골조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사랑의 집은 교회의 사회에 대한 역할 감당의 요구가 증대되고 있는 시대적 요청에 따라 우리 교회가 사회 봉사의 차원에서 건립키로 한 것이다. 따라서 사랑의 집에는 자폐아 교육시설이나 경로대학과 같은 사회 복지적 측면에서 필요한 시설들이 갖추어질 예정이다.

90년 5월에 건축 허가를 신청하였으나, 주변 환경이 주택가인 관계로 지하 4층짜리 신축 공사의 허가를 받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래서 애초의 설계를 변경하고, 결국 91년 5월에 강남구청으로부터 건축 허가를 받아 내었다. 설계가 변경된 사랑의

집 규모는 지하 3층, 지상 2층의 연면적이 약 890평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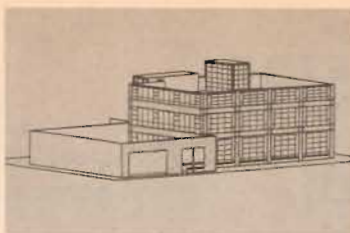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본격적인 공사는 91년 10월에 시작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현재까지의 공사 현황과 앞으로의 일정을 살펴보면, 바닥 공사가 이미 끝난 상태에 있고, 지금은 골조 공사가 진행 중이다. 이 골조 공사는 5월이면 끝나고, 그 후부터는 내장 공사로 연결된다.

지금까지 이 공사에 직접 관여

해온 건축위원장 노광현 장로나 관리국장 오진국 장로, 그리고 그 외의 다른 공사 관계자들은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고 변함없이 사랑해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였다고 이구동성으로 감격해 하였다.

말이 지하 3층을 파내려가는 것이지, 실제로 지하를 파내려간 깊이는 약 22미터에 달한다고 한다. 이 정도의 깊이라면, 건물 신축 공사로 주변 건물에 금이 가 건물주들 간에 소송이 붙었다는 뉴스 거리를 만들만도 했다. 그런데 공사 관계자들에 의하면, 주민들은 그런 항의를 하지는 커녕 협조를 잘해주었다고 하면서 이는 분명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다. 그뿐 아니라, 이들은 아무런 사고 없이 지금까지 공사를 진행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모든 일을 진두지휘하실 것이라는 확신에 차 있다.



◀설계가 변경된 조감도

또 건축 경기 활성화로 건축 자재가 모자라는 요즘과 같은 실정에 서도 모든 것을 필요에 맞게 예비해주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자재 조달에 따르는 어려움도 없단다. 그 외에도 모든 공정을 진행시킬 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고 있기 때문에 기도할 때마다 감사의 눈물이 절로 나온다고 한다.

공사 관계자들에 의하면, 총 공사비가 약 22억이 든다고 한다. 그런데 교회의 형편으로는 이를 감당해낼 수 없다는 것 또한

절실히 요청된다 하겠다.

지금까지의 공사에서 아무런 사고가 발생하기 않은 것을 성도들의 숨은 기도 덕분이라면서, 개인 기도 시뿐 아니라 공기도 시에도 사랑의 집 건축을 위한 기도를 잊지 말아달라는 특별한 요청도 있다.

앞으로 약 7개월 후면 우리들 앞에 아담한 자태를 드러낼 사랑의 집 건축을 위하여 성도들의 기도와 물질적 헌신이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하겠다. 그래서 사랑의 집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영광



◀공사 현장 사무소

이들의 고민이라고, 사랑의 집이 다름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귀한 터전임을 생각할 때, 충현인들의 물질적 헌신이 더욱

과 그리스도의 복음의 아름다움 소문이 각처로 퍼져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

피택장로 교육 3월 11일 개강

지난 2월 26일 피택된 5명의 장로들에 대한 교육이 지난 11일 오후 5시 30분 개강 예배를 드림으로써 시작되었다.

이 교육은 오는 6월 28일까지 매주주일 오후 4시 교육관 301호에서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는 주제 성구 아래 성경연구원 주관으로 진행된다.



서송원충현교회, 중산충현교회 본 교회서 지원 중단키로

당회는 서송원충현교회(민춘화 전도사 시무)를 충북노회(교회장 김준규 목사)로 이관키로 하고 사례금 지원을 중단키로 했으며, 중산충현교회(김영일 목사 시무)도 목회 활동이 여의치 않아 지원을 92년 2월 29일부로 중단키로 결의했다.

장년3부 특강 “육식과 성인병”을 주제로

장년3부(부장 마성락 장로, 지도 윤영탁 목사)는 오늘(15일) 교육관 314호에서 이종석 장로를 강사로 “육식과 성인병”이라는 주제 아래 특강을 실시한다.

기도원 생수 평평 지하 102m 더 파 생수 적합 판정

충현기도원(담당 김방진 장로)은 최근 지하 102미터를 더 파서, 생수가 넘치게 흘러나오고 있다.

이미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의 시험 성적 통지에서 음료로 가장 적합하다는 판정이 나왔다.

우리 교회 교인들은 충현기도원을 많이 이용하여 기도도 많이 하고, 풍부한 생수도 많이 가져가기를 기도원측은 바라고 있다.

청년3부 특강 “창조론”에 대하여

청년3부(부장 최대원 장로, 지도 김해규 목사)는 오늘(15일) 권명상 교수(강원대 교수)를 강사로 하여 “노아 시대의 홍수”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갖는다.

대학부 제2기 예수제자훈련 실시

대학부(부장 이훈 장로, 지도 이병각 목사)는 지난 14일부터 제2기 예수제자훈련을 전개한다.

오후 2시에 실시되는 이 훈련은 조장을 양육하기 위한 것으로 기도회, 큐티, 성경 공부 등의 순서로 진행되고, 성경 공부 시간에는 교회론, 종말론, 성경 공부 인도법, 구·신약사, 구속학적 성경 이해 등을 다룰 예정이다.

중등1부 교사 세미나 가져

중등1부(부장 차신득 장로, 지도 김희수 목사)는 효과적으로 학생들을 지도하기 위하여 지난 3월 8일 낮 12시 30분 중등1부 교사실에서 교사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발제자는 장윤성 선생, 나한선 선생, 김강운 선생이었으며, 중학 1년생의 특성과 기독교 교육의 목표, 중등1부 분반 공부 현황 및 방향에 대해 발표하였다.

이번 세미나를 통하여 중등1부 교사들은 학생들을 좀 더 이해하게 되었고, 분반 공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좋은 기회가 되었다.

살롬경로대학 임시 소집 안내

- 일시 92년 3월 19일 오전 11시
- 장소 갈릴리홀
- 대상 60세 이상 노인

—경비실을 찾아—

교회를 지키는

일선 파수병

시간이 소요된다.

전에는 용역회사에 의뢰하여 경비 업무를 담당해 왔었는데, 현재는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이 업무를 맡기고 있다. 이 성전이 어떻게 건축되었는지를 잘 알고 있는 이들이기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으로 자신들의 직임을 수행해내고 있다.

24시간 근무 중 가장 힘든 시간은 보통 사람들이 잠에 깊이 빠져들 시간인 자정부터 새벽 4시 사이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의 집을 지켜나간다는 일념으로 쏟아지는 잠도 참아낸다.

그러나 경비 직원들이 가끔씩 안타까움을 느끼는 때가 있다.

주문하는 일은 삼가해주었으면 하는 것이다.

또 하나는 관리국으로부터 장소 사용 허가도 받지 않고 저녁 늦은 시간에 찾아와서 잠긴 문을 열어달라고 하는 경우이다. 성도들은 교회 시설 관리와 보안의 차원에서 이에 대한 협조도 바라고 있다.

일반 성도들이 교회를 잊고 지내는 시각에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우리들을 대신해서 교회를 지키고 있는 경비실 직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해보자.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불의의 사고 없이 직임을 잘 수행해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

3월 금요 특별 집회 초청 간증자

날 짜	성 명	소 개
3월 20일	윤항기 전도사	• 복음성가 가수 • 서울찬양선교회 교수
3월 27일	김소엽 권사	• 기독교 여류 시인 • 시집<그대는 별로 뜨고>의 저자 • 신촌성결교회 권사 회원